



여론매체

社說

'교수회만의 선거' 아니다

총장 후보로 6명의 교수가 등록함으로써 캠퍼스는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장선거가 무산됐을 당시와 같은 6명이나 되는 많은 교수가 후보등록했다는 점 외에도, 申國柱 총장선거가 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소문까지 들리는 가운데 후보자간 로비나 재단과의 압력적 협력이 이뤄졌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벌어져야 할 것들이 다들 혼탁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번 선거과정은 지켜보며 대학 총장 선거가 갖는 신성함이 퇴색되거나 없을지, 또 1대학 2총장이라는 엄청난 사태로 빠져들어가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소용돌이치는 내외 정세 속에서 본교가 처한 위기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파행·난국' 등으로 표현되는 중대 기로의 시점을 '발전'의 계기로 역전시키는 장으로 이번 선거가 연출되어야 함은 모두의 바램이다. 우리는 이번 총장선거가 갖는 의미를 학원에서 총장이 갖는 그 공적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원을 자주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대학 행정 체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실천의 장으로 견제한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본교에서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재단이 대학발전의 계승자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84개 상상의 민족통국대학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원의 발전과 자주화를 어렵게 하는 재단 내의 중립다툼은 인품중심으로 계보를 형성하고 중립유지를 위해 독재정권에 밀착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5.16군사쿠데타 이후부터 관선이사나 관선총장이 본교를 장악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교 교육적 사회가 권력자향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맥을 형성하게 되어 지금의 현실을 일태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렸던 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양측의 명백한 이견만을 조정시킨 채 끝났으며, 그러나 분단의 장벽이 높고 견고한 것을 실증시켰다. 우리 민족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한겨레 한뼉들을 지켜오면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가슴아픈 고통 속에 모순에 찬 삶을 영위해 오고 있다. 특히 통일의 거대한 역사적 전력과 준비는 커녕 오히려 더욱 상호 적대감과 군비경쟁이 증폭되면서 남북 7천만 한민족이 참담한 분단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하는 조국의 현실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점은 자주·평화·민중대단결의 3대원칙을 명백히 선언한 74공중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 불가침 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이라는 반통일적 장애물부터 철폐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분단의 철책을 뛰어넘어 온몸으로 조국통일을 실현시켜내고자 했던 문익환박사, 문규현선부, 안수정양은 죽자 석방되어야 한다.

며, 특히 이러한 결과가 7천만 민족에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일깨우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견은 반드시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의 역량을 기초로 하여 획기적으로 극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범민족대회와 같은 민중의 자주적 통일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절실히 제기되는 것이며, 따라서 민중의 자주적 통일운동은 부단히 실천되어야 한다.

민자당은 대한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시·목민

이창복

(전민권 상임의장)



반통일적 제도철폐-권비축소등이 통일 열쇠

인 및 평화협정 체결, 군사력 감축, 외세의 간섭 배제 및 외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 건설 등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보강과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통일 논의 및 운동의 창구독점 철폐와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적 제도의 청산이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완전히 봉쇄하는 한편, 같은 동족인 북한 동포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제도적 장애물로 역할

이들 통일 지사들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의지는 빛바랜 구두선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조국통일의 큰 길이 열릴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것들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며 지는 것이

전면 개방과 통일운동 관련 인사의 석방 등 조국 통일의 방도를 열어 놓는 실질적 조치로부터 비롯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화와 UN의 단일의식 가입, 그리고 민간차원의 다방면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조국통일로 가는 중요한 열쇠이며, 그러므로 이번 2차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타결되기를 바라

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조국통일로 가는 중요한 열쇠이며, 그러므로 이번 2차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타결되기를 바라

열린글터

경주 학생 기숙사개선 한계노정 가로등 전허 없어 '우범시대' 우려

경주캠퍼스는 다른 대학에 비해 유난히 타자기 학우들이 많다. 그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며, 나머지 학우들은 자취, 하숙, 통학 등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여름방학 동안 여학생기숙사가 완공되어 세척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숙사들이 아직 낡고 좁아 불편한 실정이다. 학우들은 기숙사들이 낡고 좁아 불편한 실정이다. 학우들은 기숙사들이 낡고 좁아 불편한 실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을 불감증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신문지면에 가득 채우는 '살인' '폭행' 등 폭력사건은 흉악한 일들을 자주 접하는 현대인의 감각은 그렇게 무딘 손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요구와 이해가 결여된 일면의 머리엔 붉은 띠를 두르고 무섭게 행동한다. 이러한 모습을 대학 내에서 본 나는 지금 폭력사건이 빈번한 실정임을 억누를 수 없다. 최근 감사로 경상대는 총대의 원외로부른 예산의 무기한 중지조치를 받았다. 경상대의 한 학우로 매우 칭찬한 일이 다. 다른 학우들도 입을 모아 "우리단체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런 정계를 받았지?" 단대장이 귀속된 학생회가 될 일이 있나? "각각 한미대했었지만 그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의 언급이 없다. 모든 불평등이 경상대의 현 상황을 말하고 있는 뿐이다. 현 상황에서는

경상대 예산중지조치 관심갖길 학생회 사업에 팽배한 무관심 극복해야

대중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을 상충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경상대의 모든 성원이 져야만 한다. 또한 이런 모습은 18일 무산된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에서도 보였다. 머릿수를 채우지 못하고 단순한 집회로 전락해 2학기에는 어떤 성과물이 나올 지의구심을 갖게 한 총회 역시 주제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학우들의 참여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우리 단체, 우리 총학에 모

든 동아인이 조직내에 깊숙이 참여해 각 사업의 고리가 된다. 그 지지기반으로 우리 단체, 우리 총학은 1만 동아인의 목소리를 일깨워 낼 것이다. 방과후 무관심에서 멀찌멀찌 벗어나 이같은 학교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요구됨이 진정으로 동아를 사랑하는 동국인의 자세라 생각된다.

문병진 (경상대 경제학과)

학생회관 화장실 이용 '문제있다'

나는 동아의 한 여학우로서 동아, 중에서도 학생회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학우에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 글을 쓴다. 평소 1층 남자화장실을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항상 문이 열려있어 일러서서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된다. 더구나 가끔씩 화장실 문이 마주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더욱 황당하다. 또 운동장을 한 후나 학교에서 잠을 잔 후 옷통을 거는 다 벗지않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학생들은 아무 곳도 숨길데가 없다는 건가. 남의 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우기 학생회관로비에 진동하는 화장실냄새를 생각한다면 화장실 문은 꼭 닫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이것은 불분명하지만 사모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반드시 사정해 주기를 바란다.

배윤주 (사범대 학교과)

東國漫評



일지성

축하합니다

■영문과 89°승환 선호 학형이 때들이 생활을 청산하고 조그만 집을 마련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학교과학교 풍류에 가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가자. -영문과 90, 건.

■은비야, 생일 축하한다. 더 많아진 나이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또한 밝아지지 바란다. 이젠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왔지만 늘 힘찬 날들이 되도록 노력해라. -사랑하는 제제가

■신문사의 새식구 태영이, 승희, 경애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앞으로 더 힘차게 열심히 같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문사 수습들이

■재정, 상현이가 경주 캠퍼스대신문사 가족이 된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함께 일하자. -진호, 옥경, 형숙이가

■남발우형, 최윤솔형 보세요. 지난 23일 형들 생일이었던 시오 인?도 많은데 왜 태어나셨어요? 아들은 뒤늦게나마 생일축하해요. 장미꽃은 못드려도 이번 뽀뽀는 충분히 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라도 저를 찾아주세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래요. -경술 울림

■산악부 알프스 3대복벽 사 진·장비 전시회및 보고회 이번 산악부에서는 한시준 알프스 3대복벽등정이란 쾌거를 이룩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90알프스 원정대의 등반사건및 장비전시회와 아울러 등반보고 회를 갖고자 합니다. 1. 사전및 장비전시 : 장소:교내 일원 :기간:9월27~29일 2. 보고회 :장소:학생회관 전시실 :시간:9월29일 오후5시(술라이드상영) -경주캠퍼스 산악부

모입니다

■철학과 공공이여 집중하세요.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장소:만해광장 딱! 한가운데 :매:오늘(26일) 12시 :이유:그냥 한번 모여서 거나 하게 놀고 취해봅시다. 회비:퇴계 선생상은 좋아요~ :안나오면:뽀! ■하하하!!! 호호호!/? 추석맞이 공과대 원동제전 모이자! 원동인이여, 더불어 함께 생애를 가자. 원동인의 힘찬 기백과 호연 지기를 더욱 돋보이게. Where:대운동장+공대운동장 :When:9월26일~27일(27일 하루종일, 히히)

■신문사의 새식구 태영이, 승희, 경애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앞으로 더 힘차게 열심히 같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문사 수습들이

■재정, 상현이가 경주 캠퍼스대신문사 가족이 된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함께 일하자. -진호, 옥경, 형숙이가

■남발우형, 최윤솔형 보세요. 지난 23일 형들 생일이었던 시오 인?도 많은데 왜 태어나셨어요? 아들은 뒤늦게나마 생일축하해요. 장미꽃은 못드려도 이번 뽀뽀는 충분히 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라도 저를 찾아주세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래요. -경술 울림

■산악부 알프스 3대복벽 사 진·장비 전시회및 보고회 이번 산악부에서는 한시준 알프스 3대복벽등정이란 쾌거를 이룩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90알프스 원정대의 등반사건및 장비전시회와 아울러 등반보고 회를 갖고자 합니다. 1. 사전및 장비전시 : 장소:교내 일원 :기간:9월27~29일 2. 보고회 :장소:학생회관 전시실 :시간:9월29일 오후5시(술라이드상영) -경주캠퍼스 산악부

■지리교육과 창설 21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열립니다. 창설이던 지리교육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더욱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교육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지리교육과 학생회

학술기회

민지당은 대학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 분임토의 기초한 총회참가 절실

진단과 모색

## 90년대 학생회

### 1. 골간체계를 이해하는 데 앞서서

87년 이후 학생회는 학생대중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며 일상적으로 조직활동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투쟁과 사업을 힘있게 고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방식과 기간 학생운동의 생활방식으로 하여금 학생회가 학생대중의 자주적 단결방식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는 삶의 터전을 일구는 공동체로, 자주·민주·통일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하는 근거지로 학생회의 위력함은 날이 갈수록 폭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90년 상반기에는 총회의 일정조치 제시를 못하고 하반기에는 그나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개회인원(재적인원의 1/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참여를 드러냈다. 이러한 90년 총회 참여의 단면은 올해 학생회 사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총회의 의의가 공동의 민주적 토대에 입각한 다수의 결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학생회를 개조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올해 학생회 사업을 총회할 수 없었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최종의결기구가 상실됨으로써,

### ◇글심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현재)
4. 회조직 골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투의 문제  
-계열체계 I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  
-계열체계 I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제
8. 총평 -정리

다. 단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질사항에서 집행사항으로 전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담아내는 최우선영구구조체 자기 역할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자주적 단면의 경우 대부분의 집행부가 권력이나 두리뭉실 허풍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총회 집행부의 경우 대중적 속히 파고 들기 위해서는 과, 단에서 비롯되는 계획수립과 직접적인 현지사업을 통해 대중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면 집행부의 경우 과간

서 90년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보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학생들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내고 실현할 대의, 의결, 집행(체계)의 있어 다음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대중성에 기초한 지도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변화(삶의 의지, 생활과 요구)의 흐름을 포착하여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주성에 근간한 민주주의 실현을 구조적, 조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단위체계가 과, 단면의 구체적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 토대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항상 아래의 행동감 있는 요구를 올바르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아래의 요구에 맞게 위를 개조해야 한다. 이는 상층의 요구에 맞게 아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위의

## 과·단대 운영위...학생들 요구 반영 시급 총회참여율 10~15%...개최 안하는 곳도

학생회로의 민주적 참여가 차

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총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학생대표회의가 있으나, 현재 학생회 전반은 비추어 볼 때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단대 학생회의 경우 참여율이 보통 10~15%정도로 매우 낮으며, 개최조차 안하는 단면도 있다. 예외적으로 경성대학교 학생회 경우 상반기에 35%이상의 참여를 확보하였다. 과의 경우 20%~75%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학생회 일꾼들은 총회투쟁의 이념-자주·민주·통일의 원리-과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의의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하여, 학생들의 자주적인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을 책임질 단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②각급 운영위원회 각급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사업하는 최우선영구구조(제40조)로 88년 학원자주투쟁에서 실재화 되었으며, 총회-단대-과로 이어지는 골간(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확보하였다.

그러나 89년 이후 관료적이고 상명하달식의 '절터없는'사업이 노획되어오며, 90년 총회운영위는 투쟁노선을 토론하는 창구로, 단대-과운영위는 자기 기반이 취약하여 방향이 불분명한 활동이 계속되었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

에서 대중성과 현실성을 획득,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성과 현실성의 획득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소망을 올바르게 수렴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기초로 의결과 결의를 공개화하려는 노력과 이에 따른 실천적 구체화 가능성 하도록 하고, 정치활동 중심의 정쟁마련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③각급 집행부 87년 이후 수립된 투쟁과정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한 것이 각급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8년 학자투의 성과는 89년 각급 집행부를 비 대와 하였으며, 내용보다는 사 형태우기식의 구성이 90년에도 이어지게 된다. (총회에서 단대, 과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생명력은 계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때에', '대중적속히' 파고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무위주, 일중심의 자기 만족적 활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총회 집행부의 경우 나 틀대로의 전문성, 계획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때에 대중적 속히 결집하고 있지 못하며, 과단위 집행부의 경우 대중과 결합하여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계획성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 연대활동이 상층으로 모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실제 단대운영위의 책임선이 불분명 혹은 미처미처하게 되므로 실무에 빠지게 된다. 과 단위 집행부의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자기 활동을 정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학우들의 생활한 요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성대 선전부에서 상반기에 통신팀 같은 제도는 매우 유용하리라고 본다.)

④총괄 과-단대-총회로 이어지는 학생회는 직접 선출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결체계와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집행체계를 양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위치 지어지는 체계들은 모두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는 "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각 체계의 내용을 규정되고, 각 체계의 위상을 분명하게 세분화, 명분과 혹은 연관을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87년에

자주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힘으로 하여, 상층이 능동적으로 개조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문제를 총괄시킬 때 각 골간체계는 학생들의 지향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학생회가 장성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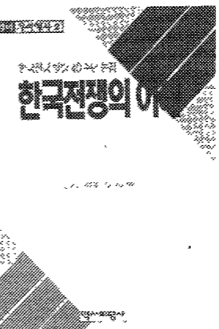
3. 맺음말 그동안 학생회를 옮겨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사회건설과 바로 직결됨을 알았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는 모든 민족적·계급적 억압이 철폐되고 승고한 정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질서가 행동규범으로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의 전과정에서 목적의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의 근거지를 세워내는 자주적 학생회건설운동은 변혁을 완수할 임무와 아울러 새로 건설할 사회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충실한 준비는 현재의 학생회를 참 삶의 터전으로 일구고 실현할 때, 비로소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인으로 역군으로 될 것이다.

(사회부)

### 바로 이색

## 냉전적 이념 극복에 한몫



정치사학과 지인  
한국전쟁의 이해

대부분의 학문분야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시각과 방식의 테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발전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전환은 해당학문 영역내에서 새로운 면이나 무시되었던 면을 부각시켜 사회현상의 이해나 설명력을 높여 학문 발전에 기여를 하게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학문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 대중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상의 요구이다. 아마도 우리의 학문세계에서 우리나라현대사(남·북현대사를 다함께 일컫는 개념임으로)만큼 이러한 발전전환이 시급히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또 현대사 가운데 한국전쟁 또는 6·25전쟁이 이러한 점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전쟁을 재조명할 훌륭한 책이 우리의 짧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태어났다.

연변학원연구소의 하나인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학과는 짧은 연구자들과 역사비평사의 공동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동연구작업의 중간결과물 형태를 이 책을 쓰게했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안고 있는 한계"가 넘적 편견성과 주관주의적 해

계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질서 구도속의 한반도, 동북아의 위상과 미국의 극동 및 대한정책을 한국전쟁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국제적 배경과 원인', 분단국가 성립과 민족양성, 남·북간의 갈등과 남한정권의 위기를 주로 다루면서 이들의 국내적 상황과 한국전쟁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국내적 배경과 원인', 북한의 민주기지 강화와 통일정책의 변화가 한국전쟁이 6·25전쟁으로 연결되는 코의 해명, 전쟁주체 및 성격 등의 규정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다른 한 축인 북한의 '국내적 배경과 원인', 실질적인 군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제5장, 북한이 보는 전쟁의 성격과 지향, 그리고 북한의 혁명노선이 그대로 표출되는 '북한의 남한정권정책', 민족내부 갈등의 폭탄으로 시작된 초기전쟁의 성격과 규모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또 하나의 전쟁초기인 미국이라는 이념적 외세의 개입전반을 다룬 '미국의 전쟁전략과 전쟁정책',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에 따라 급변해지려는 동북아질서본래의 구도로 재정착시키기 위해 또는 자기들의 '방어'를 위한 어떤 수 없이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중국의 참전 배경, 원인 및 영향', 북한이 초기의 '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또 미국의 급속한 개입으로 '조국·민족해방전쟁'으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게 됨에 따라 어떻게 북한정권이 대처해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유엔군이란 의의를 쓴 미군의 반격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등을 서술한 '북한의 국내 정치', 휴전협정이라는 우리는 반공포로

의 석방이 전부인 것 처럼 인식해왔으나 '인도주의 원칙'이나 '자유승용'이라는 사항 탈영의 수사에 밀어 숨어있는 추악한 정황을 밝고 나가는 미국의 이중성들이 길게 깔려있는 휴전협정 전개 과정을 파헤치려는 시도의 '휴전협정의 성립과정과 성격',

## 현대사의 사회과학적 해석 시도 통일조건 창출하는 대안 모색해

의 오류 및 격양된 냉전적 감정의 개입을 극복하고, 풍부한 역사적 사실의 천착과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사회과학적 해석을 시도해보고자하는 소박한기적으로 시도"된 중간 결과물이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연구주체와 쟁점을 다양화, 보다 민족·민중중심적이고 주제적인 시각에서 설명과 서술을 시도, 지은이가 여러 연구자들로 구성된다면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비록 제한적이고 초보적 수준이지만 전쟁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뒷받침시켜 논의를 풍요롭게 하려는 성실한 학문적 태도, 역사연구를 단순한 지적호기심의 대상화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엘리트층 충족도로 만들려는 무사회의식적인 자식생이에서 벗어나 분단의 '극복'을 위해 통일의 조건과 논리를 창출하는 대안모색'을 의의로 삼은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는 지성인으로서의 고뇌와 사명감등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의 어떠한 한국전쟁 연구업적보다 돋보이는 글들이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전쟁에 관련된 유의미한 연구주체와 쟁점, 방법론 등 총괄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연구자나 일반독자의 이해를 돕는 길잡이의 글인 연구서설, 세

가지막으로 데미의존적인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남한, 주체적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북한, 세계를 일깨우게 냉전의 심화 등 전쟁의 국내외적 영향을 다룬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복원'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관점에 입각하여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현재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2단계' 과제 달성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점이 이책의 평가에서 아까운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성공여부는 고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여온 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문제의식의 전환, 쟁점의 다양화, 민족적·민중적·적시적, 일국적 통일적 관점, 역사나 학문에 대한 현재의 관점 등 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식민지시대 조차 탈피 못한, 근대주의에 매몰된, 승미주의·반공주의에 포로가 된, 보일법 관료층에 걸려 스스로 자기검열을 엄포하는 나약한 일부 지식사학자나 사회과학자에게 그들의 기존 연구와 자신 스스로를 반성하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 정 구  
(사회과학대교수·역사사회학)



# 新入社員募集

浦項製鐵은 다음世代的幸福과 다음世紀의繁榮을約束하는企業입니다.  
10년앞을 내다보는智慧로 21世紀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浦項製鐵의無限한可能性과 함께成長할人材를 널리 찾습니다.

### 1.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術系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金屬工學, 化學工學	250名	• '64. 1. 1 이후 출생자 단, 碩士는 '62. 1. 1 이후 출생자 • 4년제 正規大學(院) 募集分野 該當學科 또는 關聯學科 卒業者 및 '91. 2월 卒業豫定者 • 兵役畢 또는 免除者 ※ 語學專攻者는 事務系分野 應試可能
事務系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150名	

### 2. 銓衡方法

- 1次銓衡: 筆記試驗 (英語, 專攻)
- 2次銓衡: 面接, 身體檢査 (1次合格者에 限함)

### 3. 1次試驗(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 日時: '90. 11. 4(日), 午前 9時
- 場所: 弘益大學校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 4. 提出書類

- 入社志願書 (當社 所定樣式).....1部

### 5. 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付處	接受處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當社 서울事務所: 중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서울시청 좌측 소재) • 포항: 本社 1層 案內室 • 광양: 光陽製鐵所	(790-785)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部 人力課

### 6. 接受期間 및 接受方法

- 期間: '90. 10. 8(月)~10. 24(水)
- 方法: 郵便接受

### 7. 其他事項

- 書類提出는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 國家報勳對象者로서 證明書 提出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優待함
- 其他 詳細한 事項은 接受處로 問議바람  
(電話: 0562-70-0693~0696)



사회보도

민자당은 대학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

## ◆노동현장의 성차별 실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의 역할은 크게 바뀌고 있다. 이제 여성들은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며,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수, 기층 여성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남부진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되며 심화해지고 있다.

우선 취업기회에서부터 여성들은 그야말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한다. '병역필자'에 한함에서부터 '20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 등의 취업제한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5세 이상 주부를 한 기업체에 몇% 이상 취업시킬 것이라는 고용대책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봉제, 섬유 등 저임금, 장시간업종의 인력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취업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내용과 형태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임금부터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이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특강을 일하는 경우에도 보통 1~2천원 정도의 일당 차이가 나고 있으며, 자동차입

## 남녀 노동자 임금비율 1백:60정도 모성보호...2세대 생산 주체이기 때문



이대... (Caption text partially obscured)

한일 평면적으로 보호와 평등을 펼쳐놓고 평등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제약 내지 박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산술적 평등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시켜주는 자들을 편들게 된다.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평등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내용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조건적 차이(모성기능)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보호를 전제로 할 때 진정한 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올바른 인식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단결의 힘으로 많은 차별들을 없애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출발선에 불과하다. 끊임없는 단결과 투쟁만이 진정한 여성노동자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서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

## ◆현장점검 — 정계피복 여성노동자의 수기 어린 시달을 위해 뭘 해야 할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환자가 태반



◇피곤한 작업장의 하루 (사진=사회사진 연구소)

시골집마을을 떠나 정계천 평화시장에 들어서서 봉제일을 시작한다. 머뭇거리다 보니,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처음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는 이력서라는 것을 써야 하는 건 아닌지하는 마음에 속으로 가만히 나의 이름·나이·본적·주민등록증번호등을 생각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공장장이라 불리우는 아저씨는 조카만 친들을 묶은 보며라들 특 던지고는 알아서 하라는 식에 환자를 어리벙벙하게 서있던 적이 있다. 그때의 나는 어떤 것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할때 옆 자리의 시달로가 차분히 일감 통치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계층집에서 쓰이는 각구위의 명칭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처음 들어본 생소한 미끼상이니 미끼·카우스·에리등의 단어들도 열심히 복습도 해가며 집에서 되새기며 보았지만, 귀가 두 개인 장점에 서인지, 한쪽으로 잘 들은 것은 또다른 한쪽으로 흘러 나갈 뿐이었다. 이렇게 나의 계층생활이 익숙해지면 서, 서둘렀던 손놀림은 하루하루 달라졌으며 내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신기하고 노동의 즐거움도 깨달았다. 그리고 가위질에 균일이 배겨감쯤, 언니들이 얘기하던 시달의 상인인 아이봉(다림이)에 대어 상체가 크게 남았다. 다림기전의 손이 예뻐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무데나 손등을 내뿜기 속스리워 자꾸만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 아직은 아니지만 조항의 언니가 내게 들려주던 '노동자로서의 자부

심, 노동자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날에는 감추는 버릇이 없어질수 있을 것이 다.

우리 공장은 미싱이 2대이다. 정원은 7명밖에 안되는데, 그중 미싱원은 4명, 계단원이 3명이다. 여자라곤 미싱원에 있는 여자 4명밖에 없어서인지 계단원은 굉장히 능청맞다는 것을 느낀다. 조금만 시간이나 드 열에외서는 괜히 허리를 손가락으로 쪼르르다든가 음내배설물을 서슴없이 내뿜을때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추러들 정도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간접 아니 정신적 성폭행이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늦게까지 작업을하는 여성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엉망이 되어버린 속을 추스리기도 전에 또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 특히나 여성들이 규칙적이야하는 월경주기가 수시로 바뀌고 먼저 많고

막막한 공간속에서 얼마 안되는 운동거리를 하루종일 왔다 갔다하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중히 간직되어야하는 생리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신장·위장병·빈혈등 특히, 자궁질환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듯 이러한 작업여건 속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앞으로 들어올 시달을 아니 지금도 하나둘씩 들어오는 어린 시달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감싸주며 우리 노동자 스스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가 노력해야 된다고 느낀다.

배인숙 (정계피복노조원)

## ◆노조탐방 60여일간 복직투쟁중인 광림노조

### 끊임없는 출근투쟁... "반드시 복직쟁취할터" '연대투쟁' 빌미로 노조간부 강제 해고해

"회사정문 앞에서 판다리가 들러 내던져지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잡힌채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니기까지 할때는 말할수 없는 분노가 일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와 '복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일 회사로 향합니다"

일전 한겨레신문 '국민기자' 석'에도 글을 낸바 있는 광림노조 조합원 강영자씨의 말이다.

현재 영등포 당산동 '산업선교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12명의 광림노조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투쟁을 나서고 있다. 회사로부터 지난 7월 해고된 조합원들은 회사로 출근하며 교섭을 하려고 하지

만 회사는 거들며 보지도 않은 채 남자직원들을 시켜 구타를 하며 내쫓는다.

강서구 동촌동에 자리잡고 있는 전기통신기기 부품업체인 광림전자의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88년으로, 기본급인상과 복지시설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교섭을 시작했다.

89년에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으로 임투를 시작했고 또다시 90년 3월부터는 강서지구에서 유일하게 전노협가입 노조가 되면서 KBS와 현중사태 지지 투쟁을 벌이는등 활발한 노조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중 지난 4월2일 노조는 회사측과 '일당 1천원인상'이라는 최소한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첫교섭에 들어갔으나

조합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의 생계 때문에 회사측의 회유에 넘어가 노조를 탈퇴할수 밖에 없었던 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할때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회사내의 노조활동이 제대로 되어준다면 우리에게는 더없는 큰 힘이 될텐데 그런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것입니다"라며 역시 수배중인 이혜순씨는 현재의 어려움과 함께 의지를 밝혔다.

12명의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복직"이 될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7명 남짓한 방에 모여앉아 '철의 노동자'를 힘차게 부르는 이들 12명의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이상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머리채를 감머리 풀려다니면서도 "내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신념아래 내일도 또다시 회사로 향할것이다.

(최유옥 기자)

## 동막로

"경주일은 경주에서 알아서 할 수 없다. 서울인한테도 산더미 같은데..."

지난 13일 교수총원탈락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을 들으며 서울캠퍼스에 상경한 경주캠퍼스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공화한 담판.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립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이 경주일은 경주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날개자르고 날아보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각 학년 전공수업이 개강 후 거의 한달동안이나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총원탈락에 대한 아무런 담판도 없었던 것은 학생에 대한 기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어일문학과 교수총원문제는 지난학기 등록금인상의 6개요구사항중 6개학과 교수총

## 무책임

원중의 1개학과로 방학중에 교수총원공고나 나갔다.

2학기 개강이후 한달동안 교수총원이되면 원할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학생들의 희망은 지난14일 제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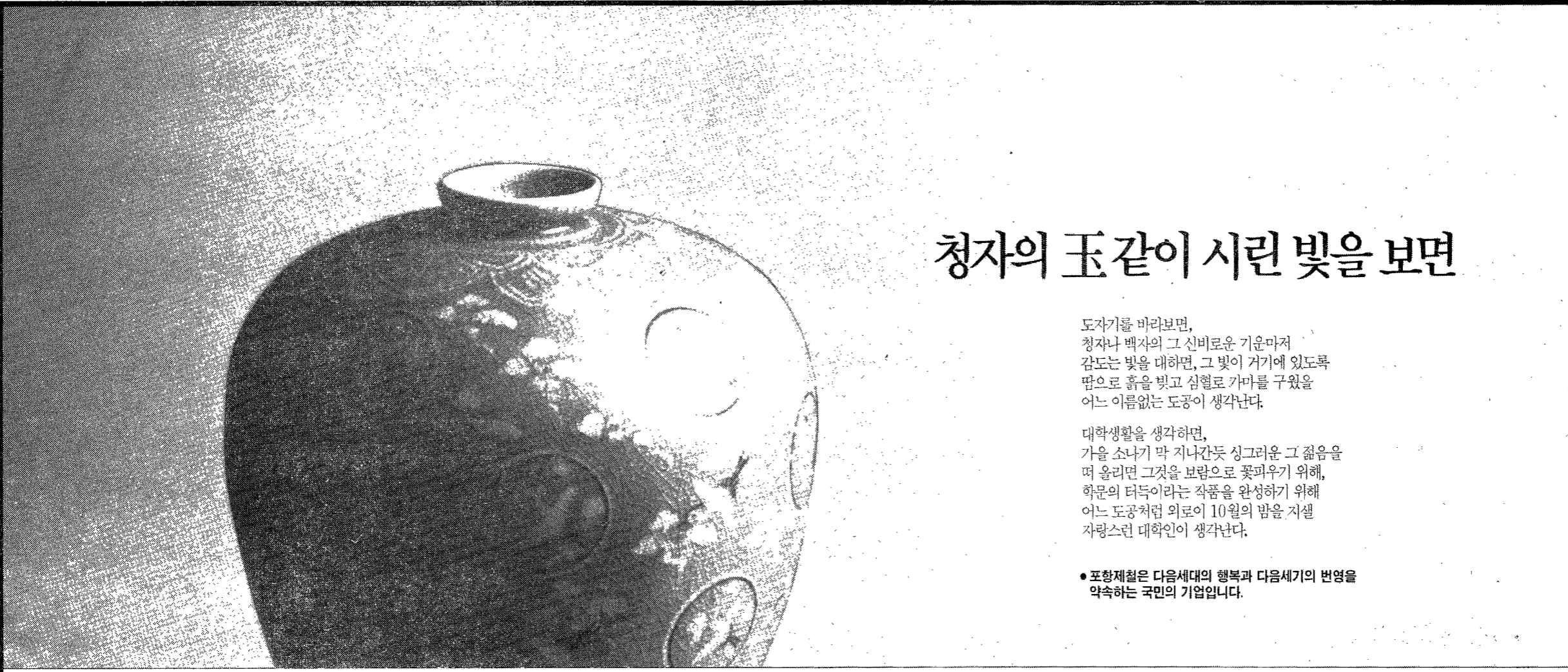
해 할 수 없고 이같은 일은 시립학교법 통과후 모든 결정권을 거머쥔 제단의 횡포"라고 일문과학생들은 입을 모은다.

교수총원탈락에 대한 학교측의 해명, 수업결손·교수총원에 대한 화답등을 요구하며 일문과 학생 1백20여명은 지난 19일 오후4시 교무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7일째를 맞는 오늘(26일)에도 오전, 오후 교내시위를 하고 교무과로 돌아오며 양학회장은 "총장선거가 끝났을 예정이고 명확한 책임인이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같은 이유를 들어 수업받을 학생의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의문을 제기하게된다."며 전면수업거부와 투기한 점거농성의 의지를 밝혔다.

수업받을 권리조차 뺏긴 등약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형숙기자)



## 청자의 玉같이 시린 빛을 보면

도자기를 바라보면, 청자나 백자의 그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도는 빛을 대하면, 그 빛이 거기에 있도록 맑으로 흙을 빚고 심혈로 가마를 구웠을 어느 이름없는 도공이 생각난다.

대학생활을 생각하면, 가을 소나기 막 지나간듯 싱그러움 그 젊음을 떠올리면 그것을 보람으로 꽃피우기 위해, 학문의 터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어느 도공처럼 외로운 10월의 밤을 지낼 자랑스런 대학인이 생각난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사회기회

민자당은 대학인문단입 즉각 중단하라

심층분석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분석

U.N 단일의식 가입 실질 협의해야

정부간 논의 성과지만 실질내용 진전없어 남한측...군축·방북인사 석방에 성의 보여야

은 거리의 기대와 전세계 인류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이 부분적인 성과와 많은 과제를 남긴 채 끝났다.

분단 45년만에 처음 열린 이번 고위급회담은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43년만에 공식회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불신과 반목·대립의 역사가 증자부를 찍을수도 있는 회담이기에 통일을 원하지 않던 민족의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번 회담은 분단이후에 단 하루도 통일에 뜨거울 열망을 잊지 않았던 7천만 겨레가 있기에 가능했으며, 미-소의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전세계에 긴장완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배경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다.

I. 회담의 의의와 성과

제1차 회담은 정치·군사 및 교류·협력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교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담은 의제와 그 접근방법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절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통일문제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방증거, 군사연속 상호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일부 군사적 신뢰구축 항목에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한편 제1차 회담의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UN가입문제에 대한 실무접촉논의와, 이산가족회합과 교향방문연교관환노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개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의 고위급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고 자리에 앉아 통일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II. 주요한 쟁점들

남북고위급 제1차회담에서는 남북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쟁점과 원안들이 노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전제적으로 남과 북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북한 양국국은 우선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문제사이에 강조점이 크게 달랐다. 남한측이 교류·협력문제에 우선적 강조를, 북한측이 정치·군사문제에 우선적 강조를 두는 것은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남한은 정치문제를 군사문제논의의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정치와 군사를 나누어 접근하고

1. 군비감축의 방향과 내용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남한측의 제안은 정치적 신뢰구축을 먼저 이루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군비감축을 추진한다는 유령식의 3단계 군비통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뢰구축 후군비축소'방안이다.

한편, 북한측의 군축안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즉, 그 구성은 △북한신뢰조성 △북남무력감축 △외국무력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으로 되어 있다.

남북한 양국국의 군축제안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군축제안의 자체와 준비방안에서의 차이이다. 남한

안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군축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군축의 내용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축안은 병력감축에 치중하고 무기감축에 상당히 소홀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대 세계적 군축추세에 보조를 맞추는 능동적인 군축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군축안은 스미 군축수문제를 전제로 내세운 입장에서 남북무력감축에 상응해 줄이기도 한 점 △핵무기 즉각철수의 종전입장에서 핵무기를 즉각철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고자 한 점 △남한의 '신뢰구축'과 비슷한 '신뢰조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한결을 전진된 안으로 평가된다.

오는 10월16일부터 열리는 평양에서의 제2차회담에서 남한측은 더 적극적인 군축자세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수정하고 북한측의 군축안에 대해서도

입장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기한 통일전 단일의식 UN 공동가입안의 구체적 방안을 처음으로 내보였다.

UN가입문제에 대한 남북의 차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남한측은 "분단 45년간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존재해 왔고 통일전까지 일연히 두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할 바탕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상, 제도, 차이, 심지어 외국 자본까지도 그대로 인정할 채 통일하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남북한이 이런 기초위에서 하나를 지향해야 된다"며 "하나의 조선" 논리로 대응했다.

중대 구체적으로 유엔가입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었다.

우선, 단일의식가입방안에 대해 남한측은 '평화를 애호하는 주권국가'라는 유엔헌장상의 가입조건에 맞지 않으며, 이진까지 전례가 없는 비현실적, 비합리적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엔통시가입이 남북에겐 동서양의 예처럼 통일에 지해가 되지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해 북한의 단일의식가입주장은 국제사회에서의 대결을 지양하자는 7·7선언 등 남한의 주장을 검토한 뒤 나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남북한이 합의 한다면 유엔헌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18일 실무대표접촉 전인 15일 북한의 (중앙통신)이 남한측이 유엔단독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이 주목적이라고 하며 "남북고위급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유엔대결상태를 협의하는데도 제방을 놓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UN대표부 현 총주 대사는 16일 "유엔 헌장의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단독가입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18일 실무대표접촉은 난항이 예상되었다.

UN가입문제를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남북한 특히 남한측은 북한측이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요시 하는 점을 보완 단독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영구분단을 꾀한다는 북한과 남한내의 실재하는 주장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73년 28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통시가입이 부결된 것이나 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단독가입이 좌절된 지난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통일전에 단독가입을 서두르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회담을 하고 있는 남한측 실무대표인 김기현(왼쪽)과 북한측 실무대표인 김기현(오른쪽)의 모습이다.

측의 군축제안이 개론적이고 추상적인 데 반해 북한측이 개론적이며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온 적극성을 보인 것은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회담에서 성사시키고자하는 군축의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제2차 평양회담에서는 남한측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군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남한측의 군축제안에서 가장 큰 하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군축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널리 공감되고 있는 미군철수와 핵무기에 관한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이다. 남한측이 미군과 핵무기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주장해 온 것을 의식,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미리 막아 보려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한반도에 일연히 미군이 존재하고 핵무기의 존재가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측이 미군과 핵무기문제를 회피해서는

중정적이고 능동적인 검토로 임해야 할 것이다.

2. UN가입문제

남북고위급 제1차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었던 남한의 UN단독가입안과 실무접촉논의 합의에 따라 9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있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UN에 남북통시가입이나 남한만의 단독가입을 위한 남한측의 노력이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공동의 지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진도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면테로부터 북한측은 단일 통일전에 유엔에 들어가자고 한다던 단일의식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실무대표간 접촉에서 북한측은 올 45차 UN총회에서 남한측이 단일의식가입을 공동으로 신청하자고 제의했고, 남한측은 UN통시가입을 주장함으로써 UN가입문제에 대한 현격한

구분	남한	북한
군비감축대안	·미군·핵무기문제 거론안함 ·추상적 개론적	·신뢰조성 핵무기철수위해 공동노력 ·병력감축에 치중 ·각론적 구체적
UN 단독 가입문제	·북한과 협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UN헌장 준수키위해 단독가입추진	·남북한 단일의식 가입 제안 ·남한 단독 가입은 영구분단과 분단고착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
방북인사 석방문제	·실정법위반 남한내의 문제 거론안함	·통일위해 방북한 인사는 당연히 석방시켜야
팀스피리트 중지문제	·방어적 훈련 ·규모축소, 격년제 시행 검토	·북한을 가상적으로 규정하는 핵전쟁 가능성 ·즉각중단 또는 최소한 2,3년 기간이라도 중단할 것 제의
기타	·교류협력 우선 강조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 강조

는 것은 반통일적 분단고정화 기도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현격한 입장차이를 당장에 합의할 못 보더라도 접촉과 논의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3. 방북인사석방문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위해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유엔가입문제와 더불어 문인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등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 문제를 "회담의 운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 또는 최소한 2~3년이라도 잠정중단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 문제를 UN가입문제나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보다 무게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이전까지 팀스피리트중단의 중단을 요구하며 각측의 대화를 중단 또는 거부해왔다. 이에 대한 남한측의 답변은 그것이 방어목적의 훈련이라는 데 지중해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남한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방대한 무력과 병력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훈련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던 것을 주목한다면 북한의 제의가 전혀 근거 없는 대화피의 위장중단토만은 볼 수 없게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가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문제는 남한정부가 이 훈련의 규모축소, 격년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III. 2차회담에 거는 기대

사실상 역사적인 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은 남북한의 고위급당국자가 통일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마구앉았다는 큰 의의에 별다른 실절상의 성과는 거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제1차 서울회담에 양 당국자가 임하지 않았던 운겨래의 통일열망과 상충한 국제분위기는 일단 제2차 평양회담의 개최를 약속케 했다.

언제까지 바라고 거는 기대는 제2차 회담에서는 남한측이 모두 확인한 입장 차이를 극복해 정적문제사제와 교류협력에 관한 실제적 합의를 찾아 내기에 천명하는 것이다.

일치하는 점은 구체적인 합의와 이루고 달리하는 건해는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제2차 회담에 거는 언겨래의 기대이며 그것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이 문제를 "회담의 운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 또는 최소한 2~3년이라도 잠정중단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 문제를 UN가입문제나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보다 무게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이전까지 팀스피리트중단의 중단을 요구하며 각측의 대화를 중단 또는 거부해왔다. 이에 대한 남한측의 답변은 그것이 방어목적의 훈련이라는 데 지중해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남한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방대한 무력과 병력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훈련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던 것을 주목한다면 북한의 제의가 전혀 근거 없는 대화피의 위장중단토만은 볼 수 없게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가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문제는 남한정부가 이 훈련의 규모축소, 격년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IV. 서형준

나라사랑 청년회 통일사랑 준비위원회 위원장

다녀오기엔 너무 먼 나라

1만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원서 대학교재

- 모든 분야의 아시아 및 원판 대학교재를 갖췄습니다.
- 각종 컴퓨터 매뉴얼 원서도 다양합니다.
- 주요 언어권간의 외국어 사전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각급 학위논문들을 도와드립니다

- 지난 1백년간의 구미지역 각종 학위논문, 전세계 1만3천종 정기간행물의 내용, 세계적인 회귀본 도서, 세계 각국의 정부기록문서까지 제공해드리는 미국 U.M.I사의 우리나라 총판을 받고 있습니다.
- 마·영·불·독·일 등 24개 선진제국이 가맹하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수입·배포합니다.

세계를 열어드립니다

- 영어·불어·독일어·일어는 물론 서반어어·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언어권의 책들을 수입 공급합니다.
- 별도로 주문하시는 책은 어느 나라 책도 열서를 다해 구해드립니다.
- 세계 각종 언어의 회화학습교재와 오디오·비디오 테이프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교보문고

서울·종로171번지 대한교육진흥원 전화·730-7801  
교원·영서 272/73 일서 276/대외교재부서 274/275

社 員 募 集

참신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주식회사 사니는 아망있는 젊은이에게 21세기를 맡기고 싶습니다.

모집부서	진공과목	모집인원	공 동 사 항
법·상경계열	법, 행정, 경영, 경제, 회계, 무역	00명	1. 91년 2월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및 90년 8월 졸업자
인문계열	국, 영, 일, 독문학과, 불, 중문, 신방학과	00명	2. 외국어 능력자 우대
식품계열	식품공학, 농화학, 식품가공, 낙농, 축산	00명	3. 관련부서 자격취득자 우대
공학계열	기계, 전기, 전자공학, 산업공학, 전자계산	00명	4.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자
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 도안 시각디자인, 응용미술	00명	

2. 근무처 (株)사니 (株)파리크라상 (株)비알코리아 (株)태인산업 (株)태인유통
3. 근무지 서울, 성남, 부산, 대구
4. 채용서류 가. 입사지원서 (당사소장양식) ..... 21봉 나. 졸업 및 종업예정증명서 ..... 21봉 다. 전학년 성적증명서 ..... 21봉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필기시험 (영어, 상식) 다. 3차: 면접
6. 서류교부 및 접수처 가. 교 부 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번지 (당사 인사과 또는 학교 취업부도심) 나. 접수기간: 1990. 10. 5 ~ 1990. 10. 12 다. 접 수 처: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0451 또는 당사 기획실 인사과
7. 기 타 가. 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 전화번호 명기할 것 나. 전화문의는 서울 233-8391~5, 성남 2-5391~7 (교한) 222, 223번

주요 사업 내용

최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주)사니는 업계 최초로 정부공인 종합기술연구소로 운영 하는 종합식품 업체로 유통산업, 수출업,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잠재력있는 기업입니다.

■ (주) 사니  
달콤하고 맛있는 빵, 케익의 대명사 사니는 전국에 4개공장을 갖추고 1일 3백50만개의 제품을 생산.

■ (주) B.R. KOREA  
미국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사의 합작투자로 580여종의 순수 천연 아이스크림 생산.

■ (주) 파리크라상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 종의 최고급 베이커리.

■ (주) 태인유통 (LAWSON'S)  
세계적인 미국 Dairy Mart사와 기술제휴로 CVS (편의점) 체인점 운영.

■ (주) 태인산업  
식품 및 원료의 수출입업과 판매설비의 엔지니어링 제작.

미래사회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식회사 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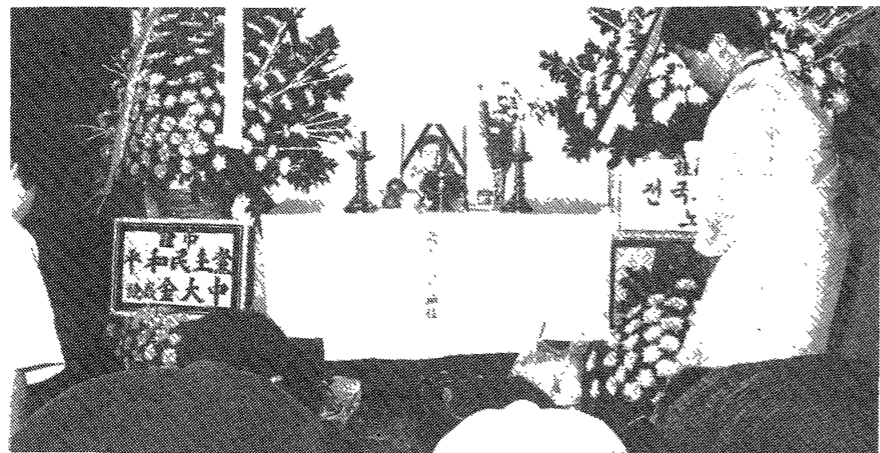
특 집

민자당은 대학언론탐압 즉각 중단하라

# 황폐한 현실이 남긴 '참교육' 유서

## 분신한 충주교 심광보 군

"참교육 그날을 보고싶은 마음이 저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보다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나라꼴이 어찌되고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려는 뜻을 이대로 모른 채 떠나고? 허나 국민들은 무엇이 좋고 그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어가고 하나! 라고 우리들에게 외치며 심광보군은 죽어갔다. '민중교육실현'의 그날까지 광보는 살아있을 것이다. (사진: 전교조 편집실)

아왔다. 그러다 지난 5월,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 문제로 휴학을 하고 서울에서 지하학원을 판다 판대, 심부름터전 중입

교육에 대한 바램을 '우리들의 친구'가 얼마나 더 죽어가고 하나! 라고 표현했듯이 자신의 죽음을 사회문제화 하고자 하였음을 그가 죽기 하루전인 9월6일 개인적으로 친했던 친구들보다

는 전교조에 편지를 써 보내고 변화가에서 분신자살을 택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6월 투신자살한 대구의 김수경양이 이은 심광보군의 분신은 한해에도 백여명에 이르러는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절박한 자성의 계기로 삼지않는, 그저 내자식이 아닌 것만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하던 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학생 심광보군 시인대해 위는 심군의 인기, 편지, 글등을 모아 추모집 발행을 준비하고 추모사업회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며 전교조는 진상보고대회, 참교육실현을 위한 토론회, 학생탐압 홍보등을 떠나갈 계획이다.

이 땅의 모순을 한 몸이 지고 동민의 아픔, 노후의 의미를 체험하며, 제도교육의 율기를 벗기려는 심광보군의 분신은 일회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민중교육의 실현'과 '사회평등'을 외치는 수많은 학생들의 대표로 나선 것이다.

사람들이 광보의 죽음을 현실도피와 절망의 감성과 일시적 충동에 의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광보는 참교육의 열망과 필적하는 민중들에 대한 해방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깨우쳐 준 것이다.

(사회부)

## 노동 체험하며 제도 교육 거부 담임해직보고 '참교육'에 관심

아빠지가 주박이 심해 수부의 생활비보조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왔다. 평소 책을 좋아해 독서모임인 '책사랑방'에서 많은 책을 보았다고 한다.

중3때는 가정형편상 공교를 전학하려했으나 주위권고로 명문으로 이남한 인문계 충주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로 해직되는 상황에서 심군은 교육현실에 눈을 뜨게되고 교육문제 관련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

을 수 있도록 휴학을 하지 말고 자퇴를 하라"고 충고하는 것도 주지하지 않았다. 이번 심군의 죽음에 평소 가깝게 지냈던 김재일 전도사는 "광보의 죽음은 교육현실에 대한 항거인 동시에 쫓겨가게 한 행, 농촌에서 공부할하는 명문고생이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몸소 경험한 농촌현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다"고 말한다.

## 고등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고교경영임사부활이 가시화되면서 부활대상지역 원주와 춘천시내 고교생 9천여명이 지난 3, 4일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벌였다.

원주 상지여고, 대성고등학교 3천여명과 춘천 강원고, 성수고, 강원대사대부고, 봉의고 6천여명도 농성을 전개했다.

이제 고등학생이 시위를 하는 것에 놀라거나 외아해 하는 사람은 드물다.

87년 6월항쟁이후 계단제도의 민주권리를 찾기 위한 요구와 함께 고등학생들의 자주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이 학생회 직선제, 부당해직교사보복, 학생회탄압저지의 형태로 전개돼 왔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숙하고 이때래의 열렬하지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높다.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교육에 의해 그 역할 분담이 현실에서 열악한게 사실이다.

기초의 고등학생운동에 있어서 몇가지 인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는 고등학생을 미성숙, 동요계층으로 이해해

고 고등학생운동의 근거를 세우고 발전하는데는 소극적이었던 사실이다. 고등학생의 비행, 폭력, 낙담복용 등을 청소년문제로 부각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그것이다.

세번째는 교육운동에 대한 모호한 이해인데 현재 고교운동과 고등학생운동이 명확한 단어의 차이가 있고 학교측의

# 적극적인 단결투쟁 활발

## 자치조직 건설 늘면 잠재력 폭발

또 대학입시라는 제도교육의 수렁에 고등학생을 집어넣은 독재정권은 고등학생운동의 역사성을 단절시키는데 주역이 되었다.

고등학생운동의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크다. 수적으로 2백 40만이 넘고 학교별, 반별로 집단화돼 있고 전국적으로 고교부 분포돼 있다. 또 처지가 비

주체로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들 내부의 뿌리깊은 봉건적식과 지배자의 논리이다. 이것들은 고등학생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막고 자주적 학생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두번째는 비인간적 교육환경, 상대적 지위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식약화를 강조하

그 예로 교사의 폭력구타에 항의해 가랑공고, 부산성고, 김제복고, 자율적 권리침해에 대한해 삼고, 구로고, 학산여고, 전교조지지에 대한 학생탐압에 항의해 영등포고, 김천여고등이 각각 수업거부, 도로점거, 대자보시위의 형태로 맞섰다.

이때 맞서 학교측은 조기방학, 교사의 수업거부, 보충수업 연기, 심지어는 경찰의 부주비한 폭력(구로고, 명산여고)으로 까지 탄압을 자행했다.

# 3김 1박부터 물러나야한다

## 정치개혁을 위한 세대 교체론

金大中·정계은퇴로 야권통합에 마지막 봉사를... 김영백 金泳三·이재 '야합중심'을 위해 당신이 물러날 때' 박성민 金鍾泌·역사가 당신을 단죄하고 청산할 것이다... 이태호 朴浚圭·카멜레온의 추한 변신 거듭할 것인가... 정몽의 개혁방향·'일괄파기' 아닌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규엽



일제 그늘 못 벗어난 관료적 사법제도 / 이범필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께 드리는 고언 / 주중환

언론풍토 개선을 위한 특별저담 / 유재천·권영길·신홍범·이근성

## 위기의 한국언론, 그 회생책은 무엇인가?

- 신문월평 ..... 홍보 홍수시대의 신문기사 ..... 유재천
- 공연월평 ..... '서울연극제' 해프닝 ..... 정진수
- 영화월평 ..... 운명과 운회의 영상영화 '국두' ..... 이장호
- 대중문화월평 .....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은 악법이다 ..... 김창남

## 한국인의 대외인식 / 오택섭

## '우익은 죽었는가' 그후

- 정치시평 ..... 제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 ..... 김웅진
- 경제시평 ..... 허점투성이의 세계 개편안 ..... 김태동
- 사회시평 ..... 우러리는 중동범죄 ..... 김문호
- 문화시평 ..... 종교연구의 증가와 종교불신의 증가 ..... 정진호

열린 언론과 참된 비평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밝음을 위하여

# 언론과비평 10 1990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는 글/이범주 남과 함께 즐기는 보람 -오늘을 사는 젊은이에게

특별기고/김동길 '날치기통과'도 '실력지지'도 다 폭력이다 - 정치와 폭력

특파원코너/외국인이 본 한국언론 히라이 히사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무신경한 보도

美8軍사령부 이전 예정지-평택의 분노/백승대 언비에세이 政治는 開闢 해야한다

中國人 그들은 누구인가 -중국인의 사고와 행동구조/박병석 통계 무엇이 문제인가/이재창

신문의 개혁이 필요하다/윤근민 필러가 제주땅, 잃어버린 삶/김관후 소방관과 구출소년의 10년 후 만남/박태홍 '통일꾼' 어느 누구도 순수 통일세력은 아니었다/최창원

## 현장탐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2백여 명이 영등포 성문바 교회에서 지난 21일 풍물을 치고,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행진을 보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문화행사를 펼쳤다. 부산에서 올라온 국민학교6학년, 중3자녀를 둔 학부모인 부산지구 최점순씨는 '학부모로 교육에 자연히 관심이 가졌고 참교육에 눈뜨기 위해선 우리것에 먼저

자주적학생 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결의대회' 보면서 국민들에게 '전교조 학부모회'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 학부모회 회장 김영만씨는 "학부모회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교조를 보고 있으며 교육 문제의 주체를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함엔 전교조는 연대협력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도 자녀교육의 주인

## 교육제도 혁신열기 확산시켜 '돈봉투 없애기'비리척결 앞장

접근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풍물을 시작했다"고 학부모회 참석자들을 밝혔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열의와 인시지육수에서 학생들이 죽어가고 교육이 황폐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뜻있는 아버지·어머니들이 '참교육'의 가치를 내건지도 2년을 맞고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쓰러지는 교육을 바로 잡으려 나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창립을 선언하고 교육을 선생님에게만 맡길수 없다고 판단 기존의 육성회, 새마을 어머니회가 어용 학부모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적 학부모 모임이 제기되면서 모인 것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다.

제도교육이 그 폐해를 더해 갈때 뜻있는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졌고 전교조가 창립되기전인 89년 3월 미산에서 '학부모회'모임이 처음으로 결성됐다.

이같은 열기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89년 7월3일에는 전국 16개도시, 4천명이 '전국학부모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현재 6·7천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학부모회는

한편 학부모회는 전교조의 '참교육'을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당국의 비방과 압력을 받았고 전교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들을(지난 6월2일 구경부대에서 열린 '고교경영학생 추모및 학생인권연방지와

학입시를 어떻게 할것인가의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회는 여러 계급·계층을 포괄, 특히 중산층이 회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임을 불태 사업에 어려움과 대중적 기반확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율적인 학부모활동의 공간이 전무했고 그에따른 활동경력이 없었던 것이 학부모회 활동 내용, 조직구성에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자기가족이주위를 벗어난 학부모들의 '참교육'을 향한 힘찬 결의는 사회민주주의의 바탕이 될것이다. (남철우 記者)



○... 연구서 출판사 언필필의 자선으로 후원...
○...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교직원연구회, 영자신문...
○... (한신대)에는 오는 10월 19일 총장선거를 열기로...
○...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문으로 설문지를 작성, 배...
○... 조. 피수, 분석적이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각 언론...
○... 사. 매체들은 보도하기 약속한 바에 따라...
○... 게재한다. 일종의 주시 독자들에게 감사한다...
○... (편집자)

### 은 10월 13일 총장선거 분석에 들어가며

은 10월 13일 총장선거 분석에 들어가며...
은 10월 13일 총장선거 분석에 들어가며...
은 10월 13일 총장선거 분석에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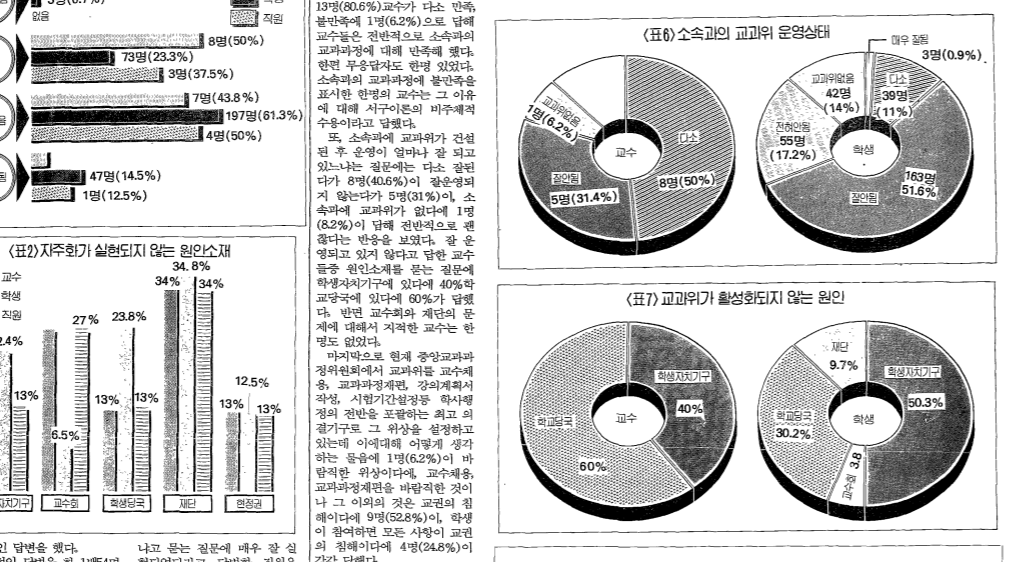
### 학자투 일반에 관하여

학자투 일반에 관하여...
학자투 일반에 관하여...
학자투 일반에 관하여...

The Korea Herald
외국어특강
영어회화
TOEFL
TOEIC
시사영어학원

# “학원자주안되는 근원 재단에 있다”

## 교과과정 위원회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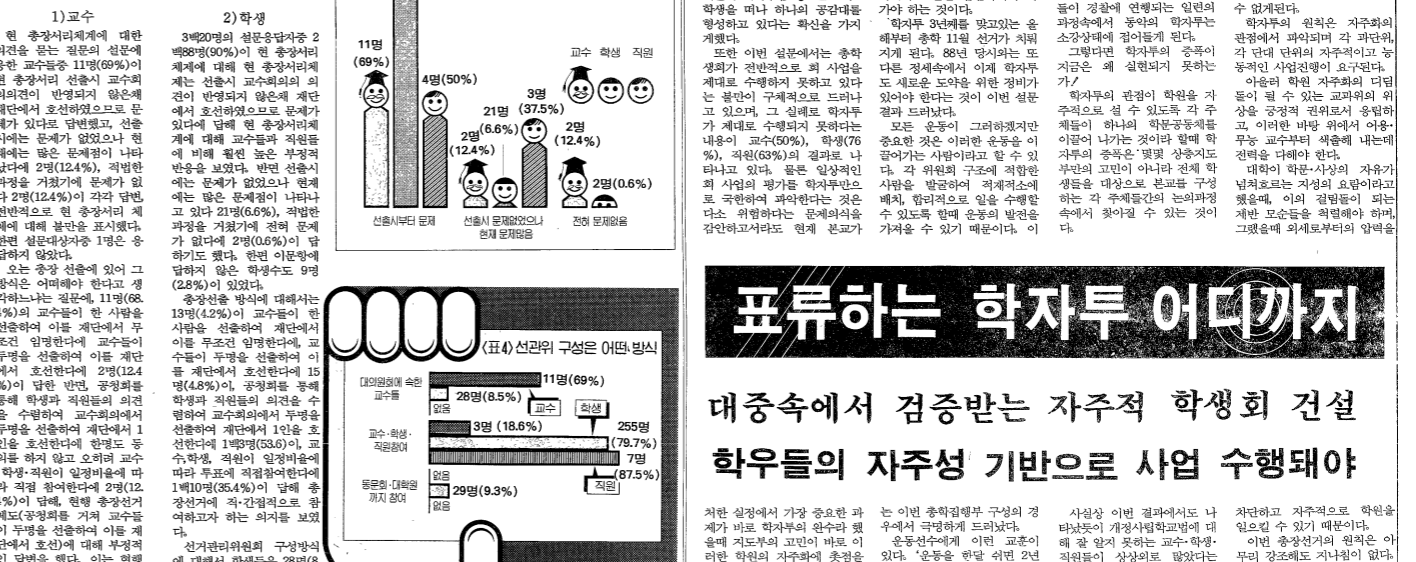


교과과정 위원회에 관하여...
교과과정 위원회에 관하여...
교과과정 위원회에 관하여...

시사영어학원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 “학자투 해설”

## 중장선출에 관하여



중장선출에 관하여...
중장선출에 관하여...
중장선출에 관하여...

시사영어학원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시사영어학원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생활문화

민자당은 대한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 탈수습기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모두 간직하며 산다. 옛것은 옛것대로 정돈 추억이 담겨 있고 새것은 새것대로 밝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다.

나에게 있어 '수습기간'은 분명 옛것으로만 단절시키기에는 내일을 위한 포부가 너무 컸다.

6개월의 짧은(?) 수습기간은 입산부가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의 의미일 것이다. 진통과 몸의 부자연스러움을 참아내며 아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배들의 압박(?) 무기력 등을 참아내며 성숙기 위한 진통기를 보냈다.

진통기.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남기는가? 그리고 입산부에게 있어 아기를 낳는 나에게는 낳는 기쁨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병민 記者

## 지난날의 실수와 오기와 용기를 되새기며 이 나라 젊은 날의 슬픔을 표현 하리라

이것이 겪는 고초를 하며 내가 지향해야 하는 길을 찾는 '발견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미 책에서 버림받은(?) 2명의 '신방파(?)' 친구들에게 난 동지애라기보다 '전우애' 같은 것을 느낀다. 낯설기만 했

도 먹기가 싫다. 살기위해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 정말 싫다. 가을하늘의 신선한 공기와 푸르름을 먹고 살수는 없을까. 코스모스 활짝 피어있는 시골

각한 채 자신을 합리화(학생기자)시키려고 얼마나 우겨왔는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하여 산다. 현실을 만끽한답시고 인간



조인환 記者

## 나 자신의 몸뚱이 불덩어리가 되어도 올바른 것, 건강한 것, 해방을 향한 일을 창조해낼터

의 오솔길을 거닐며 교복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철학자가 되어 본다. 머리속의 생각이 단순히 상업으로만 끝이 났을때의 비참함이 단순한 생활의 타성 때문인지 나 자신의 본분을 망

이기를 포기한 짐승의 행동을 한 시간도 6개월의 호르몬에 분해되었다. 그 못맛한 향기가 그리워진다. 내일 내가 수습의 명칭을 떼기 때문일까. 현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필요의 공부

수습(修習). 아무생각없이 들어났던 그 야말로 하나의 명칭이 될 수 있는 수습(獸習). 하지만 다시 한번 버려야 떠올리면 있을 수 없는 명칭이다.

이젠 이 글로서 난 적어도 수습(獸習)은 아니리라.



김경숙 記者

## 이 창공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얻기위해 그 댓가를 나의 정직한 필대로 치를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노동자들이 자주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인데..."

럼 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반문했을때 대충 얼버무리는 선

을 쓰면서 무엇인가 흘린듯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배워가는 사이에 무심코 스쳐갔던 일들이 선명한 사진들로 떠올랐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회선생님 말씀에 나는 무언가 개인적이지 않다. "선생님, 그런 사정들이 조금 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수습(修習). 아무생각없이 들어났던 그 야말로 하나의 명칭이 될 수 있는 수습(獸習). 하지만 다시 한번 버려야 떠올리면 있을 수 없는 명칭이다.

이젠 이 글로서 난 적어도 수습(獸習)은 아니리라.



김경숙 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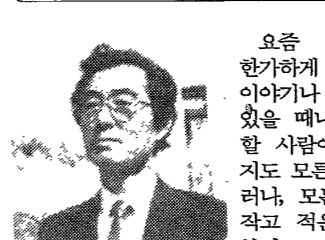
지금 모습은... 내가 말하는 바를 언론은 개인적 정해서는 억부족이야.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어야만..." 나는 정말 그때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점차 나는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나의 삶은 더불어 살며만이 빛이 나리라.

민중을 얘기하고, 노동자를 부르짖고, 선전선동을 외치던 양 버거하던 많은 단어들을 이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린다. 내가 이 창공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나는 그 댓가를 나의 정직한 필대로 치루리라.

산다는 것,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앞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탈수습기 전강에



요즘 세상이 한가하게 풍초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냐고 탓 할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작고 적은 데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기분이 뜬내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우뚱거리지 않고 그때 제 모습을 간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옮겨 인식한다면, 이 한담이 한담 아닌 한담이 아닐까!

원산지가 페루인 담배가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후 유럽인에게 전래되고, 17세기엔 동양에도 퍼져 우리나라엔 광해군 10년(1618)에 이웃 일본을 통해 전해져 왔다고 한다.

담배란 말이 담배를 일본에 전한 포르투갈 사람의 용어 'tabaco'에서 비롯되지만, 광해군, 인조 때 학자인 李穡의 (芝峯類稿)에는 '烟草' (담배)란 기록이 보이

고, 남도 민요인 담배바다행은 "담배구 한 대 먹고 나니 목구멍에 실랑개 든다"처럼 '담배구'로 일컬어졌는가 하면, 춘향전에는 "담배 무쇠 담배 무쇠"와 같이 '담배'로도 일컬어졌던 것이다.

이 담배는 그 주성분인 니코틴의 독성이 아주 강하여 10~20밀리그램이 치사량이고, 1~4밀리그램 정도는 소량인 증독을 일으킨다고 하는데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호품으로 피우고 있어, 담배의 기호성이 얼마나 강할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전만 해도 이 담배가 주로 성인 남자의 기호품로서,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

### 풍초 閑談

崔世和 (사범대교수·국문학)

담배, 어른 앞에서는 피우지 않는 것이 담배 문화의 한 규범이었다. 그러나, 광복 후 도란한 구미문화의 유입으로 오늘날 이것이 거의 무너져 여자의 꺾임의 계층도 높고, 어른 앞에서 서슴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예사롭게까지 되었지만, 얼마전에 젊은이가 나이 많은 어른에게 당혹해 담배를 빌었다가 거절당하자, 폭풍까지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마음이 꽤 언짢았다.

대학생들 중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많고, 그 중에는 또 '담배 잘 먹는 용귀들(龍貴)도 적지 않을 줄 알며, 남학생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계적이지는 않은 듯하지만 예연 여학생도 없지 않는다. 이야기다. 요즘 젊은이 권장되고 제조업소까지 담배 해독에 대한 경고를 문담담에 실는 추세에, 학생들이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법 제한 연령으로 태어난 대학생들에게 금연을 강요하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맞출 수는 없다. 다만 피우지 지켜야 할 사회

통념의 전통 예의 공동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캠퍼스 어디를 가나 눈에 띄고, 복도와 강의실 바닥까지 여기저기 버려져 돌아간 풍초를 보면, 적어도 국민 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최고학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는 지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하고 한편 한 심한 생각이 든다.

이런 최소한의 예의 도덕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앞으로 어찌 질서있는 민주사회의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풍초 이야기(가) 부질없이 담배까지 뒤

옹박을 판 풀이란 편지나 받지 않았으면 한다.

### 대학원단 최초 북경방문 "통일무드 조성 한뫼할터" — 본교 응원단장 윤석현군



제11회 북경아시아게임 공식 응원단인 본교 응원단인 '백상(단장=윤석현, 영문88)'의 단장을 비롯한 단원5명이 참가하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일에 대한 열기가 높은 만큼 아시아게임에서 남북공동 응원단구성부에 관해서도 여론이 집중되었다. 통일 의지와 동국선양을 목표로 북경을 향한 윤석현군을 만나 보았다.

▲어떤 경로를 통해 북경에 가게 되었는가. —8월말 우연한 기회에 만난 백백이 이상용씨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학교총부와 통일의 조성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흔쾌히 승락했습니다.

▲응원단의 구성과 본교생 참가자는. —

이런 아시아게임응원단은 한국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사력을 다해줄것지만 통일무드조성에 일조한다는 목표 아래 단장인 이상용씨, 사물놀이 4명, 격투기 4명, 사물놀이 4명, 격투기 4명, 김혜진(불교89), 김수경(교육89), 장호원(국문89) 양 4명

▲남북공동응원단구성계획은. —1차접견이 무산되긴 했지만 북경에서 남북응원단이 만나게 되면 다시 계안을 하고 반드시 함께 응원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함께 응원하고 동시에 경기기 열리면 분담해서 참석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응원단으로서 갖는 각오는. —20일 출국해 각종 경기에 참가하고 폐막식 다음날인 10월8일경 귀국할 계획입니다. 통일분위기조성이 가장 큰 목표인만큼 한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삼가하고 우리의 독특한 응원을 아시아인들에게 선보이며 남북이 하나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勤)

▲연습과정은 어떠했는가. —응원내용의 반이상이던 요이며 나머지는 동요와 가곡, '아!대한민국' '손에 손 잡고' 등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9월1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 본교에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 한겨레 하나'가 되자 이원 응원의 기



## "작은 손길 하나도 고귀한 이 가을에..."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이면 부지깥에도 털뽀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바에서, 먼 바다에서, 산골에서... 우리들의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울적임들로 부산해집니다. 애써 심고 정성들여 가꾼 밭의 결실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다며 풍요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모와 이땅의 평범한 많은 이들의 삶의 절박이 없었던가 가을의 거두어들이던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시인 쌀은 물론

고추나 콩, 밤, 사과, 버섯,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해산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고, 수확을 위한 그 어느 손길 하나도 더 없이 고귀한 이 가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그 귀한 손길들에 힘을 보태고, 또한 내가 거둬야 할 수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함께하는 이 땅의 어우러진 삶속에 —

대우가 있습니다.



교양문화

학생투고

80년대 이후 기존의 허구적 창작 파는 구별되는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회·정치적 사건(파업투쟁·철거·의문사...) 등을 문헌형식을 빌어 형상화한 '보고문학'이 어느때 보다 활발히 창작되고 있다.

투쟁현상속에서의 노동자의식변화과정 형상화

홍승일씨의 '철의기지'를 읽고

독재, 폭력, 몰락, 보고문학의 양식을 소설적인 것대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보고문학이 취한바 있는 '사건의 평면서술'로서가 아닌 소설형식을 도입한 데 있다.



88년 128일간의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을 그린 이 책은 현장성의 풍부함과 더불어 투쟁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을 드러내줄 뿐더러 투쟁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이로서 작품의 묘미도 가증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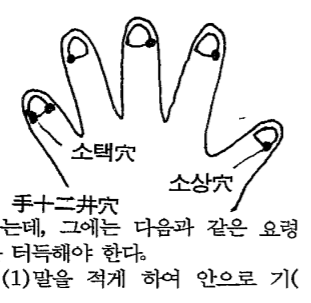
을 쓴 올베를 전형인들을 창조한 못됐고, '전국의 노동자-민중이 연대하여 싸우는 조직'이 필요함을 한 노동자의 시각으로 평가하지만 막연하게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울산산서 '현대사'로 오보할만큼 막강한 독점 제권, 이에 대항하는 피어린 128일간의 기록은 우리에게 과거경험을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서 살펴볼수록 요청하고 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사람의 수명은 본래 4만3천2백 일 즉 120세를 정명(正命)이라 한다.

갑자기 체했을 때에는...



氣)를 기른다. (2)색육을 경계하여 정기(精氣)를 기른다. (3)기름기 있는 음식을 적게 먹어서 혈기(血氣)를 기른다.



열등생의 일기

모처럼 수업을 받으려고 학교에 나오니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오후부터 휴강이었다.

“무슨 집회한다고 하면 친한척 끌고.. 몇명 모여 떠든다고 민자당이 해체돼니?”

했다. 그런데 수업을 듣고 밖에 나오니 험상궂게 생긴 녀석들이 똥똥 날아다니며 내차 옆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

그날 모처럼 학교 지나갈때, 잘 패같은 녀석한테 말을 걸었더니 잘 못이었다. “이/니/ 여보슈/ 남의 차원에서 추수하다가 좀이라도 내면 어쩔려구 그래요. 기록이나 학교도 좀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추수를 해야 됩니까, 만해광장이나 운동장도 있었잖아.”

민자당은 대학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이 쓰고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놈들은 모두 코가 딱 막혔는지... 하여튼 뭇 때문에 기를 쓰고 싸울려고 하는데, 자식들, 휴강하려던 아침부터 하느라, 괜히 사람만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다.

“무슨 집회한다고 하면 친한척 끌고.. 몇명 모여 떠든다고 민자당이 해체돼니?”

자.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2학기 학생회사업을 결정하기로 하자구.

“맞구구, 자기도 나처럼 수업 빼먹기를 밥먹듯 하는놈이 학생회에 있다고 팔난척 하는거야 뭐야?” 나는 그놈처럼 못들은 척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꼭 무슨 집회만 열었다 하면 친한척 끌고 내가 나방이나!”

대입기

한이념 아래 삼보의 淸淨道 창립 피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본교는 불교적 특수성이 있고 이런 특수성에서 본교의 학풍이 독자성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東國白書

오늘날의 우리대학은 어떠한가? 병폐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궁지와 희망에 찌던 '동국'의 과거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짐채를 면치 못하는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랑스런 조상, 자랑스런 후손”

Advertisement for Korea Zinc Company Ltd.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zinc ingot and text describing the company's history and products. Text includes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and '세계 10대 아연 제련회사 - 고려아연(주)'.